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10.25.(금)

## 작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는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을 충실히 검증하였습니다.

< 보도내용 (국민일보, 10.24) >

◆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인데... 국토부 ‘적정’ 판정

-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시 철근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보고서는 ‘적정’ 결론
- 시공사는 설계도면과 달리 잘못 시공된 10여개소에 대해 보강공사 예정

□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「시설물특별법」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(이하 ‘점검업체’)이 점검을 실시하고,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.

- 국토부가 마련한 선정 기준\*에 따라 선정된 점검업체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, 지자체, 국토안전관리원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입회하여 투명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.

\*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 있고,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중 시공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

- 현장점검 시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확인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을 실시하여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 여부 및 보수·보강 필요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\*하였습니다.

\* 총 427개 현장에서 보수·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최종 발표(23.10.24)

□ 언론에 언급된 단지의 경우, 점검 매뉴얼\*에 따라 10개 기둥을 샘플 조사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기준보다 높아 걱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

\* 국토안전관리원 작성 → 구조전문가 검토 → 국토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→ 배포

- 슬래브 비파괴검사(전단보강근 탐사) 결과, 설계도면과 같이 전단보강근이 모두 배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점검업체가 ‘적정’ 판정하였고, 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검증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- 결과발표 이후, 해당 단지 **입주민이 시공사에 요청함에 따라 ‘입주민이 선정한 안전진단 전문기관’** 이 지하주차장 내 2,000여개 기둥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재조사를 하였고,
- 그 결과 모든 기둥에 **전단보강근이 올바르게 시공되어 무량판 구조의 구조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\***하였습니다.
- \* 콘크리트학회가 안전성 평가 용역을 수행하고, 그 결과를 건축구조기술사회가 검증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책임자	과 장	김영아 (044-201-3364)
	주택건설공급과	담당자	사무관	이광우 (044-201-3369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